

# '지원금' 없는 상상력은 없다?

안치운 | 연극평론가

바야흐로 물질과 산업이 예술동네에서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물질과 산업을 떠받치는 가장 큰 요소가 경제적 기반인 것처럼, 작품활동에서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보다는 작품제작의 물질적 토대와 소비과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창작과 작가의 존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창작하는 이들에게 불문율과 같은 '상상력에는 형태가 없다' 라는 경구는 '지원금 없는 상상력, 작가와 작품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라고 바뀌어야 할 지경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술창작에 관한 지원의 대상이 많아졌고, 지원액도 늘어났다. 올해는 '새로운 예술의 해'다. 정부가 내거는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는 표어를 빌려 말하면 문화의 세기가 아니라 돈에 의한 지원의 세기가 오고 있다. 그만큼 지원금의 위력이 커졌다. 예컨대 지원금을 주는 행사만 보더라도 공연예술행사 관객개발, 국악레퍼토리공연, 대중예술, 무대예술인해외연수, 무용공연, 무용국제교류, 무용기획공연활성화, 무용레퍼토리공연금, 무용연구, 신진 무용인, 연극인, 신진 전통예술인, 어린이 연극공연, 연극국제교류, 연극기획공연활성화, 연극레퍼토리공연, 연극연구, 우수기획문화축제, 음악공연, 음악국제교류, 장애인 문화향수권신장, 재외동포연극교류, 전통예술공연, 전통예술국제교류, 전통예술기획공연활성화, 전통예술연구, 종합예술제 특장 행사, 종합예

술평론연구, 재외동포전통예술교류 등이 있다. 지원금액도 참으로 많다. 그럼에도 작가들은 지원금이 적다고 말하고, 공연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한다. 지원받은 작품들은 거의 별볼일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 판단이 어려우면 우리는 다시 지원을 왜 하는지, 작가와 작품의 존재방식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수천년 동안 호수로 있었던 속초의 청초호, 그곳의 반을 메워 지반을 형성하고 그 위에 많은 돈을 들여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선진문화를 말했던 것은 억지에 불과했다. 엑스포가 지난 지금 그것은 조잡한 특산물을 파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모두들 알게 됐다. 돈을 다 써버리고, 그 아름답던 호수의 절반을 잃어버린 지금, 누구를 탓할 것인가? 그 사업에도 정부의 엄청난 지원금이 쏟아 부어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학의 해, 사진의 해가 있었지만,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플레이어드 총서(Biblioth que de la Pléiade)>처럼 문학의 고전들을 집대성하고, 정확한 텍스트를 담은 책이 출간되지 못했고, 길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집이 없다. 우리 고전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읽을 만한 고전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고전을 가장 정확하게 담은 책 중의 책, 책의 고전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의 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가 나아지기는커녕 주거공간과 삶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 건축을 통해서 삶을 읽고, 삶이 건축공간에 들어가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 알려주지도, 연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단기적 행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책임을 맡은 이들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들만이 기억에 남을 뿐이다. 작품이 아니라 돈을 말하는 작가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 그만큼 작가의 태도와 작품창작의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